

투데이 칼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최근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계인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도민들의 안전 신고 동참을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관서는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로 상시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백화점),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위반사항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방치 및 폐쇄·차단행위,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폐쇄행위,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불법행위 목격 48시간 안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



김 장 수

전주완산소방서장

금이 지급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서에서 평상시 소방특별조사나 불시단속을 통해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혹은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불건을 쌓아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비상구 앞에 잠깐 박스를 쌓아도 괜찮겠지”,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면 불편하니까 도어클로저를 잠깐 떼어 놓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은 불법행위 신고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파란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소방서에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에 방문한 소방공무원에 의해 명확한 위법 행위가 확인 된다면 과태료 부과는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과태료 300만 원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은 먼저 내 영업장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이라면 도어클로저가 제대로 결합 되었는지와 후어 도어스트로퍼가 있는지 살펴보자.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어스트로퍼 설치의 불법행위이다. 영업 편의상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도어클로저 결합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가 운영·관리하는 건물 또는 영업장에 비상구가 있다면 그 주변에 불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비상구는 위급 상황에 대피를 위해 만들어진 출입구로 불건이 쌓여 있다면 곧바로 치우도록 하자.

국민신문고의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부 안전에 소홀한 관계인은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는다.

관계인의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에 따른 벌칙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설

고창군 어르신 '청춘다방'

최근 전북 고창군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이 고창군 여성회관 1층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청춘다방'을 오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에는 따뜻하고 상큼하고 달달한 여러 음료들이 마련돼 있다. 청춘다방은 청춘카페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문을 연 '청춘다방'은 고창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시도로 이루어졌다.

청춘다방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3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창시니어클럽은 바리스타 전문교육과 카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청춘다방에서 제공하는 커피 맛 또한 일품으로 평가 받는다. 카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청춘다방' 근무자 고미순씨는 "올 3월부터 여성회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오픈 날만

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카페가 문을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다"며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고 밝혔다.

최창근 고창시니어클럽 관장은 "활기차게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메뉴를 정하고 함께 준비한다"고 말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절실하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노년의 행복이다. 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일을 꾸준히 하면서 나이가 들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건강 배세의 중요한 과제다. 노인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고창 청춘다방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맛있게 먹고, 주민들의 소통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

서거석 교육협의회 현안 좌담회

전라북도 교육협의회가 최근 서거석 전북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도내 초·중·고 학력 신장 등 현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전라북도 교육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간 전북 초·중·고 학력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학력 신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히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세력에게 전북 교육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서 후보가 당선돼 풀지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수 협의회장은 이날 "전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교육 현장에 이념이 개입되고, 학력에는 무관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직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학교 현장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월성 교육 탈피라는 명분을 내세

워 학력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훌륭한 정책과 학력 신장의 의지를 가진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협의회는 지난 1997년에 창립했다. 그동안 학생 상담 활동과 장학 사업을 해왔다. 회원은 70여 명이다. 40여 명 학생을 인솔해 중국과 일본 교육 현장 견학 활동을 한 바 있다.

전북은 오랜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산업에서는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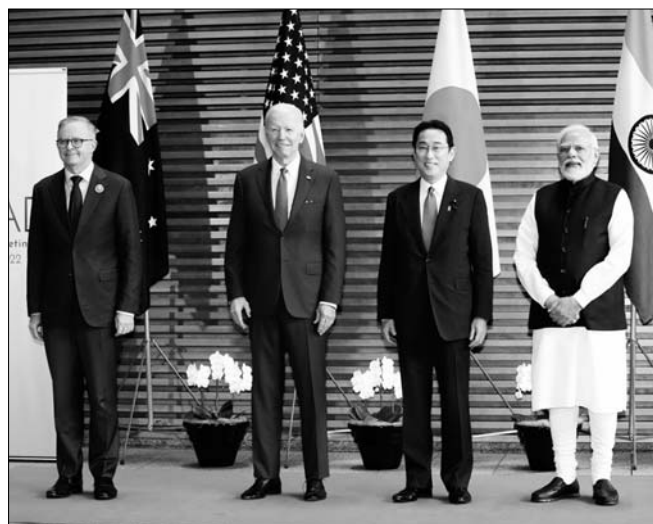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열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만이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전라북도 교육협의회는 서거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침체된 전북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념 촬영하는 퀴드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



24일 일본 도요 총리 관저에서 퀴드 정상회의가 열려 참석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순양함 침몰 기념 우표·엽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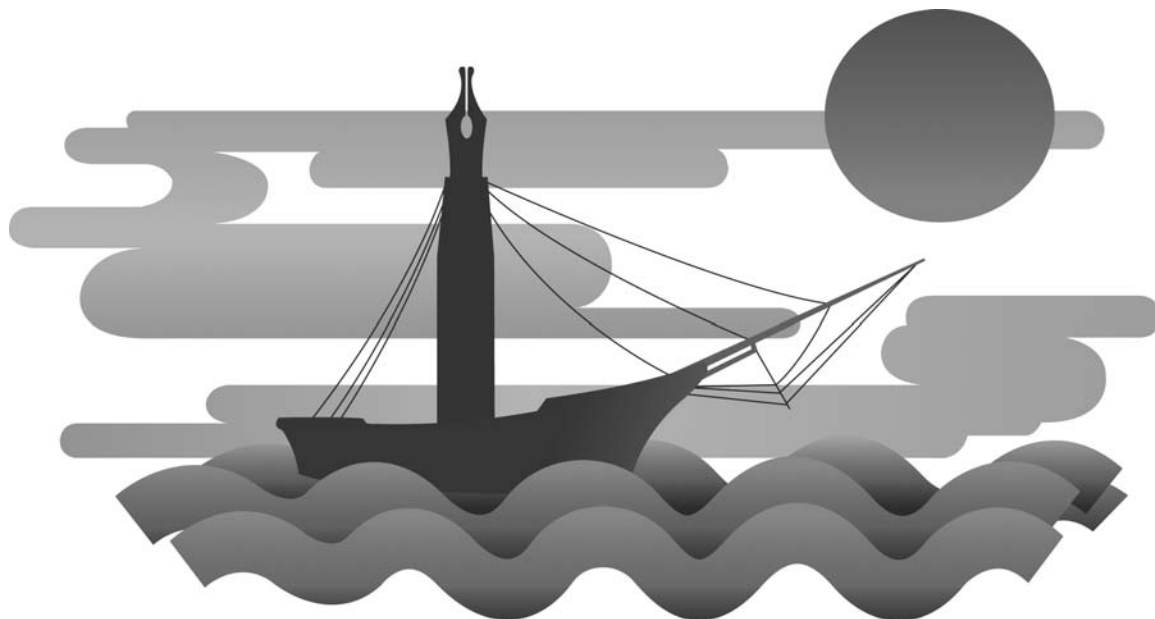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시민이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의 침몰을 기념하는 우표와 엽서를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를 미사일 공격으로 격침한 바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